

# 野 “외교·안보 라인 교체 안하면 해임건의안 발의”

###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책임 참모진 교체 거듭 촉구 민주당 최고위 “무능이 이번 사태 촉발”... 정의당 “輿, 국정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발생한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외교라인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대대적인 경질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비속어 사용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교·안보라인의 무능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보고 여론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외교는 곧 국민의 삶의 문제”라며 “민생 위기에 외교참사까지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힘을 내 잘못은 신

속하게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각종 논란을 사실상 ‘외교 참사’라 규정하고 비판 강도를 높여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국민을 호도했다며 ‘거짓말’ 프레임에 초점을 맞춘 발언들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장치보다 거짓말이 화근이었다”라며 “전두환 정권은 ‘탁’ 치니 ‘억’하고 박종철 열사가 죽었다는 거짓말이 탄로 나 몰락했다”라고 언급했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진솔한 사과로 호가호위 세력을 배제했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격리된 독재자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논란이라고보다는...”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솔한 사과를 요구해 온 야당은 윤 대통령의 답변에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순방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

호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도 결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정상회담을 하려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정상이) 어느 위치에 설 것인지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은) 무슨 준비를 했다”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팩트’가 명확하지 않다면 공세 일변도의 태도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로 일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바이든’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 해명대로 ‘날리면’이라고 들릴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러면서 “보도된 내용도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분석도 과학적으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인 정의당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번 육설 파문은 ‘국회 부정’이자 ‘국정 독주 선언’이라며 외교라인의 대대적 교체와 김 수석의 경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李-金 “지역화폐 지킴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지방정가 라운지

### 채은지 “광주형 일자리가 ‘정치형 일자리’ 전략”

#### 광주시의원 ‘5분 발언’서 지적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상생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과 노동권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정치형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은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첫 성과인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국내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지만, 동반 성장과 상생협력, 소통과 투명 경영 실현 방안이 부족하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GGM은 620여 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지난해 9월 첫 양산 이후 올 연말까지 5만대 누적생산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반값 연봉’에 주거 등 대체복지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창사 3년 만에 50여 명이 퇴사했다”며 “회사 방침을 따르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경영시스템을 답습하기보다 투명한 소통으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이직 전문학교’, ‘정치인 포드존’이 아니라 당초 광주시와 GGM이 약속한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보장 등 신뢰·비전을 위해 노사상생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키는 것”이라며 “약속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특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김성환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 광주시의회 ‘전문성 인정’

광주시의회는 26일 제3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오랜 공직 근무 경험으로 각종 정책 조정과 갈등 해결 관리 능력을 갖추고 구청장 근무 경험 등으로 행정과 조직 관리 분야 등에 있어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청문 준비 기간에도 환경공단의 기능과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고객 중심 경영, 노사 상생의 조직 문화, 기술혁신의 정책 소견을 제시했는데, 정책

변화를 공단 경영에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정치 경력과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에 대해선 “이사장직을 수행하려면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와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들어와 전남도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민선 6기 광주 동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강기정 시장은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정의당 지도부 선거전 개막

###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이동영·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출마 선언

정의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전이 26일 시작했다.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이동영·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일제히 당 체신을 강조하고 있다.

조 전 부의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을 부수고 용기 있게 중원으로 갑시다”라며 “이제 ‘6411 버스’에서 내릴 시간이다. 투명인간들이 자신의 일터로 출근할 때, 우리는 일터를 지배하는 경제권력의 전장으로 용기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6411 버스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한 노선이다. 이후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의 대명사 격으로 6411 버스를 거론해 왔다.

이동영 전 수석대변인은 “운동권 동호회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정당”을 언급하며 재창당을 강조했다. 이 전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을 넘어 제3세대 재

창당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양당정치 바깥의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이 제3의 정치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나 문제는 그들에게 정의당이 제3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출마선언문에서 “이념정치에 매몰된 정당은 주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우선순위는 민생정치이며, 국민의 삶에 실효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 당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위임받은 권력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주의·주장만 하다가 그치는 ‘구호정치’를 끝내야 한다”면서 “때로는 유연함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사정상, 급매 합니다.

1. 내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

## 투자, 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